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93호 (2008년 1월 넷째 주)

관광산업연구실·관광지식정보

인수위 “2월초 한반도대운하 대토론회 열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
2007년 11월 서비스업 생산동향 (통계청)	3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동향>	4
<운수업 생산동향>	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생산동향>	6
[김종민 문화부장관 신년사] 첫 산업, 그리고 마지막 산업 (문화관광부)	7
전통주 주세 50% 감면...활성화 날개 단다 (농림부)	10
새 정부 12~15개 부처로 축소 개편...부총리 폐지·공무원 수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
“문화로 모시니 홍보효과 짱이에요” (문화관광부)	12
“문화의 시대, 세계 도시들 동향을 알려주세요” (문화관광부)	15
문화부 “콘텐츠 산업 육성...5대 문화강국 실현” (문화관광부)	16
문화재청 “왕릉·박물관 등도 무료화 추진” (문화재청)	18
산림청, 휴양서비스·생활환경개선 위한 1만 2천여ha 사유림 올해 집중 매수 (산림청)	20
서남권, 2020년까지 신성장거점으로 만든다 (국무조정실)	20
이경숙 인수위원장 “문화대국으로 가는 기틀 만들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4
유원지에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건설교통부)	25
“대운하 여론수렴 등 모든 절차 밟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5
버시바우 대사 “한국 비자면제국 최우선 지정 최선” (국정브리핑)	26
[서울특별시] 북경에서 서울을 만난다	27
[부산광역시] 2008년 부산발 크루즈가 뜬다!	28
[부산광역시] 국제문화도시 부산!! 2008 국제문화행사 풍성	29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중흥 위한 ‘10대 비전사업’ 본격 추진	31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대적 정비 및 「사과표시 등급제」 도입	32
[광주광역시] 2008년도 광주시예산 어떻게 쓰이나	33
[광주광역시] 2008년은 문화수도 조성사업 본격 추진의 해	34
[광주광역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 열려	35
[강원도] 강원도 농촌관광 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36
[강원도] 전국 학교 수학여행 사전답사 강원도 방문 러시	37
[경기도] 경기-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기본방향 합의	38
[충청남도] 서천지역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포함 확정	38
[충청남도] 충남! 2020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확정	39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와 당진군에 설치 합의	41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이용 여행상품 공모전 결과 발표	41
[전라남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 열려	42
[전라남도] 일본 주요 여행사 무안국제공항 이용 상품개발 나서	43
[전라남도] 정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심의 확정	43
[전라북도] '08년 관광산업예산 이렇게 쓰인다	44
[전라북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45
[전라북도] 전북관광홍보 사이버게릴라 양성	48
[전라북도]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48
[전라북도] 관광공사 전북지사 설립 세미나 개최	49
[제주특별자치도] '08년 관광분야 제도, 중요하게 달라지는 점	50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라온승마랜드 개발사업시행 승인	51
[최근개정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52
[입법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안)	53
[해외동향] 태국 관광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줄줄 (KOTRA)	55
[해외동향] 한국과 호주의 관광교류 동향 (KOTRA)	56

인수위 "2월초 한반도대운하 대토론회 열기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2월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대운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초에 KDI와 국토개발원이 주관하는 대운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운하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토론회에는 대운하에 찬성하는 분들뿐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도 모두 초청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일관된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가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대운하 사업 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인수위는 건설업체에 대운하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요청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건설사들이 대운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비즈니스프렌들리(기업친화적)를 강조한 당선인의 뜻대로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향후 대운하 문제는 갖가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순모(soomong@korea.kr) | 등록일: 2008.01.02)

2007년 11월 서비스업 생산동향

□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7.8% 증가

- 전월대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의료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1.4%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 의료업, 운수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7.8% 증가

<전월대비 주요 증감업종>

- 증가: 의료업(8.1%), 금융·보험업(3.4%),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3.3%), 교육서비스업(2.9%) 등
- 감소: 부동산 및 임대업(-1.4%), 사업서비스업(-0.7%) 등

<전년동월대비 주요 증감업종>

- 증가: 금융·보험업(24.1%), 의료업(14.0%), 운수업(9.0%),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8.5%) 등
- 감소: 부동산 및 임대업(-8.0%)

(전년동월(기)비, %)

	2006	3/4	11월	'07.3/4	9월	10월p	11월p
- 서비스업 전체	5.2	4.5	5.7	6.9	3.7	9.3	7.8
·금융 및 보험업	7.9	4.9	7.0	18.2	12.3	22.7	24.1
·의료업	10.0	11.9	11.5	6.3	2.1	5.3	14.0
·운수업	6.3	5.9	6.5	9.0	6.9	11.4	9.0
·오락·문화·운동관련	2.5	-0.9	2.1	9.9	3.1	5.9	8.5
·사업서비스업	5.9	5.7	6.0	6.5	5.4	8.4	5.8
·통신업	2.8	3.2	4.8	1.8	-0.7	7.9	4.0
·도소매업	4.0	4.3	4.5	3.7	0.4	8.4	3.8
·교육서비스업	2.3	1.4	3.1	1.9	3.7	-4.2	2.4
·숙박 및 음식점업	2.1	2.3	0.7	1.4	-1.9	5.3	2.1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3.8	3.9	2.8	1.4	-0.7	3.2	0.9
·부동산 및 임대업	10.2	7.4	15.8	3.8	-1.2	-0.1	-8.0

주: 증가율 크기에 따라 업종을 배열하였음

<업종별 전년동월비(불변지수) 비교>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동향>

-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은 휴양콘도운영업, 일반음식점업 등에서 이용객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숙박업은 휴양콘도운영업, 여관업 등에서 1.2% 소폭 증가

- 음식점업은 간이주점업에서 부진하였으나 피자, 치킨점 등 기타음식점업 등에서 호조로 2.3% 증가

○ 전월(계절조정)에 비해서는 0.2% 증가

(불변, 전년동월(기)비, %)

분 류	2006	3/4	11월	'07.3/4	9월	10월p	11월p
숙박 및 음식점업	21	23	0.7	1.4	-1.9	5.3	2.1
·전월(기)비(계절조정)	-	0.7	0.3	0.7	-1.5	0.7	0.2
- 숙박업	1.7	1.9	0.7	1.8	-4.5	4.7	1.2
·호텔업	2.0	3.1	0.1	0.6	-5.8	6.6	-0.3
·휴양콘도운영업	4.4	1.3	2.3	7.6	-1.0	5.8	12.4
- 음식점업	2.1	2.5	0.6	1.3	-1.5	5.5	2.3
·일반음식점업	2.9	3.9	0.3	-0.3	-3.4	5.8	2.7

○ 주요 증감 업종(전년동월비, %)

- 숙박업: 휴양콘도운영업(12.4), 여관업(2.8), 호텔업(-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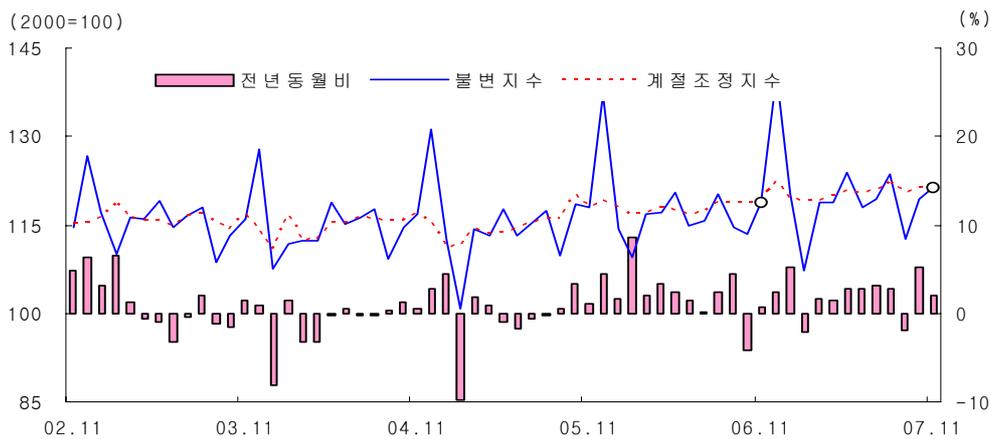
- 음식점업: 기타음식점(7.7), 일반음식점(2.7), 제과점(1.0), 간이주점(-2.3)

※ 음식점업 분류

○ 일반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단체급식(기관 및 학교구내식당) 등

○ 기타음식점: 피자, 햄버거, 치킨, 분식 및 김밥, 간이휴게소 등

<월별 숙박 및 음식점업 지수 추이>



<운수업 생산동향>

○ 11월 운수업은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등에서 물동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

- 육상운송업은 도로화물운송업, 도시철도 등의 호조로 13.2% 증가

- 수상운송업은 외항운송업 등에서 5.7% 감소
- 항공운송업은 항공화물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등에서 호조로 19.1% 증가
- 여행알선,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공항), 여행사업 등에서 6.9% 증가

○ 전월(계절조정)에 비해서는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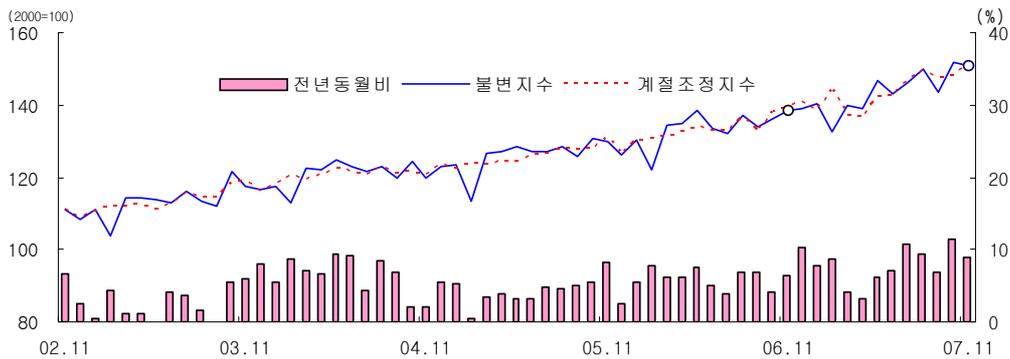
(불변, 전년동월(기)비, %)

분 류	2006	3/4	11월	'07.3/4	9월	10월p	11월p
운수업	6.3	5.9	6.5	9.0	6.9	11.4	9.0
·전월(기)비(계절조정)	-	0.7	0.8	5.5	-1.3	0.1	2.3
- 육상운송업	5.0	7.5	4.8	8.3	4.9	17.0	13.2
- 수상운송업	10.6	3.3	10.3	8.9	5.1	2.5	-5.7
- 항공운송업	5.1	5.1	2.9	8.8	4.9	6.6	19.1
- 여행알선, 창고, 운송관련서비스업	6.8	4.3	9.6	11.0	16.1	7.2	6.9

○ 주요 증감 업종(전년동월비, %)

- 육상운송업: 도로화물(22.6), 도시철도(6.6), 시내버스(1.7), 철도운송(1.4)
- 수상운송업: 내항운송업(19.4), 외항운송업(-7.7)
- 항공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24.3), 항공여객운송업(15.6)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항공운송지원업(13.6), 여행사업(12.2),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6.1), 창고업(-2.6)

<월별 운수업 지수 추이>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생산동향>

- 11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은 영화산업과 방송업의 호조로 14.9% 증가

-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은 골프장운영업, 오락장운영업 등에서는 저조하였으나 경기장운영업(경마, 경륜, 경정 등), 기타오락산업(카지노, 복권, 장의마권발매 등) 등에서 호조를 보여 5.4% 증가

○ 전월(계절조정)에 비해서는 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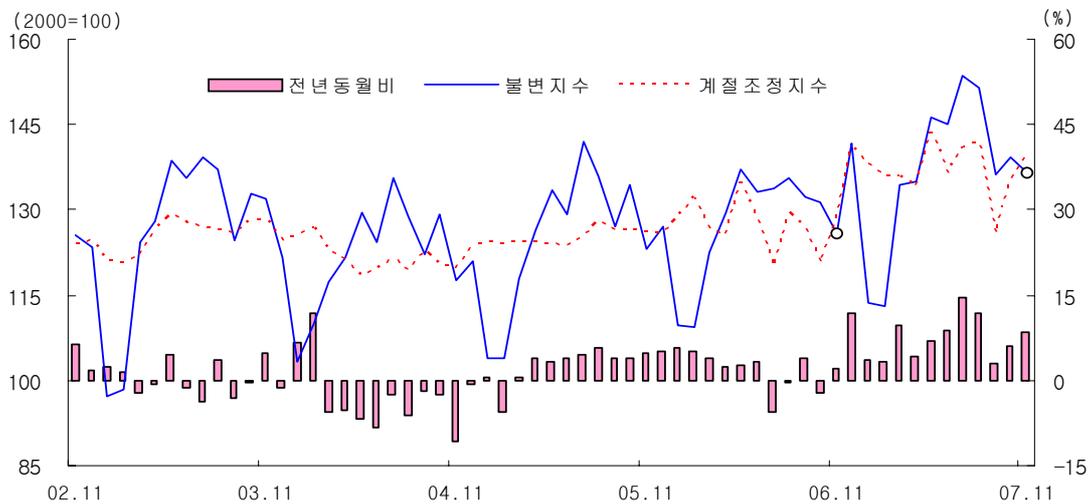
(불변, 전년동월(기)비, %)

분 류	2006	3/4	11월	'07.3/4	9월	10월p	11월p
오락·문화·운동관련	2.5	-0.9	2.1	9.9	3.1	5.9	8.5
·전월(기)비(계절조정)	-	-3.2	6.5	-1.3	-11.5	7.6	3.3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9.3	-0.2	3.3	17.4	17.2	0.1	14.9
- 기타 오락·문화·운동관련	-0.8	-1.1	1.5	6.0	-3.4	9.3	5.4

○ 주요 증감 업종(전년동월비, %)

-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영화산업(31.2), 방송업(10.6), 공연산업(8.0)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경기장운영업(29.7), 기타오락산업(12.8),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0.7), 골프장운영업(-3.5), 오락장운영업(-3.0), 체력단련 및 종합운동시설운영업(-0.6)

<월별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지수 추이>



(통계청, 산업동향과(042-481-2161~75) | 등록일: 2007.12.28)

[김종민 문화부장관 신년사] 첫 산업, 그리고 마지막 산업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 더 큰 행복이 가득하고, 그 행복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쑥쑥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2007년을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고 우리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정책과 현장 사이의 거리를 좁혀 개방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성 기반 확충은 물론 창작, 제작,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을 일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콘텐츠국책연구원 설립의 교두보를 어렵사리 마련해 내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R&D가 없었던 문화산업분야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복제를 뿌리 뽑고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저작권의 물질을 따라 문화산업의 강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려는 백년지계였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문화산업' 의 경쟁력 높여

우리는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장려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창설하면서 조세정책의 범주를 뛰어넘어 '문화로 모시기'라는 사회운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랑받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가는 제도이자 문화입니다. 이는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웹 2.0'의 철학을 담은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과 행정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지난 해, 우리 관광산업은 국제관광 2천만 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광산업이 무역업대우를 받도록 개정하였고, 관광산업 펀드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광이 명실 공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가는 변곡점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백두산관광과 남북공동원열차 운영을 포함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체육은 상인의 후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출범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준비도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회 도서관엑스포를 잘 치러내면서 도서관 발전의 기폭제를 만들었습니다. 사행산업위원회도 무난히 발족되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도 주도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진척시켜 왔습니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순조로운 출범을 거쳐 정상궤도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생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짓고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새해맞이를 착실히 해온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매우 보람된 일입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와 철학과 열정을 함께 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들의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여러 소속기관과 단체들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체육계의 최일선 현장에서 능동적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프간 인질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신속히 만들고 교계를 묵묵히 접촉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했습니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서해안 일대의 오염과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

은 고통입니다. 우리 부는 어려움에 처한 태안 등 서해안지역이 세계적 규모의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 관광의 중심지인 점에 주목하여, 서해안을 청정 관광명소로 되살리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화재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지만, 침착한 대응과 미래지향적인 수습방안을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바람이라는 우연을 풍차로 잡아내는 혁신적인 노력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직의 상하와 좌우를 망라하여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문화원들과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동하면서, 구 서울역사를 복합 문화관광 공간이자 코리아 센터의 본부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비효율적인 보고 체계도 바꿔, 민간기업들이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바람이라는 우연을 풍차로 잡아내는 혁신적인 노력들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탁상의 문화행정이 마케팅의 날개를 달면서 소통의 벽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놀 수 있는지, 21세기의 놀이는 어떠한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알고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수만과 비무장지대를 찾아 이곳이 환경과 생태의 보고이자 세계인이 부러워할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우리 부 가족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난 놀이판도 벌였습니다. 겨울에는 '수능후 100일 문화대작전'을 벌여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과 문화난장을 펼치고 함께 덩굴며 미래로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노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 부는 탄탄한 팀워크로 소통하게 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이고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당신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창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가 본질로서 행복을 지향하며,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는 양면성을 직시하였습니다. 행복을 향유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성찰하며, 동시에 그 행복 속에서 경쟁력이 자라고 발현되어 국가의 진퇴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개인과 집단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살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경제지표를 넘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 전체로 정책목표를 넓혔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위에서, 우리 부가 할 일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높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상인의 후각'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 모두가 문화를 고루 누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친구의 손길'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그리고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콘텐츠. 이들은 인간 내면의 욕망이자 자유로운 감성이며, 그래서 행복의 원천입니다. 산업 측면에선, 다른 산업에 앞서 맨 처음 생겨나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본능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종사한다는 점에서, 문화는 '첫 산업'입니다. 과거에 농업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 통해 높은 부가가치 생산해내야

이제 문화는 그 자체가 방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IT, 교육, 의료 등 다른 산업과 전방위로 융합하고, 하이터치와 하이테크가 한데 어울립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도 모두 문화로 모여들고 결합합니다. 문화와 결합할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며, 문화와 손잡지 않고 선 어떤 산업도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융합의 시대에 문화는 '마지막 산업'입니다. 당연하게도, 마지막 산업으로 올수록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시대의 문화행정가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전문성이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문화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국경도 세계로 넓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행복을 가득 채우고 경쟁력을 키워서, 그것이 세계로 널리 퍼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의 헌신과 열정이 소중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온 소중한 꿈들, 우리는 함께 씨 뿌려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책과 사업들이 이제 세월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을 것 입니다. 멀리 보고 밝게 보고 강인한 의지로 나아갑시다. 행복과 경쟁력이 어우러져 함께 춤추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역입니다.

2008년 원단

문화관광부 장관 김 중 민

(문화관광부, 정선영(young312@korea.kr) | 등록일: 2008.01.02)

전통주 주세 50% 감면...활성화 날개 단다

민속주·농민주 포함...품질개선·홍보 등 함께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전통주에 붙는 주세가 50% 인하되며 그 대상도 과실주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전통주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통주의 주세 인하, 지원 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주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이번 주세인하 조치와 함께 전통주의 품질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보완책도 추진,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로 한정돼 있는 지원대상을 농민주와 민속주를 통칭하는 전통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민속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광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주류를, 농민주는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를 의미한다.

또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 감면기로 했다. 과실주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왔었다.

농림부는 이번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탁주와 약주만 제정돼 있는 전통주의 품질 규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 등에 전통주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우리술과 전통음식의 만남'과 같은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류를 포함한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이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식품클러스터사업 등과 연계해 '명인전수교육장', '전통주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는 이강주, 한산소곡주, 복분자주, 인삼주, 매실주 등이 있으며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현재 주세액 기준 0.7%(전체주세 2조3000억원), 출고량 기준 0.3%(전체출고량 320만kl)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농림부, 선경철(sunnyboy@korea.kr) | 등록일: 2008.01.02)

새 정부 12~15개 부처로 축소 개편...부총리 폐지·공무원 수 유지

- 인수위, 기획·조정역할 강화...15일경 결론

이동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18개 부처를 12개~15개 부처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논의 거쳐 15일경 최종 결론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간과 캠프 내에서 10여개의 시안이 마련된 것을 취합해 초안이 이 당선인에게 어제 보고됐다"며 "대부처주의를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되 공무원 수는 감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부총리제 폐지,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초안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이 함께 보고됐다"며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고, 통합될 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정 시기와 관련 "이르면 오는 15일경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 개편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A, B안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캠프 내에서 10여개 안을 검토해 보고된 것을 취합해 초안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여성부가 없어진다는 보도는 70~80%가 오보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서 "12개가 기준도 아니고 15개가 기준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15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직 개편 마무리 후 각료 인선

그는 또 부총리제 폐지와 관련 "부총리직은 총리 밑에 소위 '중간 보스'가 필요해 마련한 자

리"라며 "'중간 보스'가 필요 없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옥상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이번에 부처를 12개로 줄일 경우 무임소장관 직책을 뒤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도 무임소장관을 둔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직 개편과 연계된 각료인선에 대해 "15일은 잠정 목표이고 그날까지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각료 인선은 당연히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순몽(soonmong@korea.kr) | 등록일: 2008.01.06)

"문화로 모시니 홍보효과 짱이에요"

- IT업체 홍보담당자 이수빈씨의 문화접대 이야기

- 기업 - 고객 갑을관계 넘어 동반자로 가는 징검다리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화이트정보통신에서 홍보담당자로 일하는 이수빈(30)씨는 지난해 가을 고객을 대상으로 재즈음악회를 연 후 완전히 뒀다. 고객들의 높은 호응으로 음악회도 성공적이었고, 덕분에 대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 내에서도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문화접대비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자신있게 기획을 내놓기에 망설였을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식사대접에 음악을 곁들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음악회를 연다는 건 모험이었어요.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부담이 컸었죠."

IT업체가 음악이라는 문화로 소통

기업 홍보팀은 해마다 회사 VIP 고객들을 중심으로 감사 인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술자리 접대나 골프용품 같은 선물 돌리기로는 홍보 효과가 나질 않았다. 이수빈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소규모 음악홀인 대치동의 마리아칼라스 홀에서 클래식한 공연을 준비했다. '코즈(COZ)'라는 남녀혼성 7명으로 구성된 재즈전문 그룹을 부르고, 레퍼토리 역시 주 고객층인 40, 50대에 친숙한 곡들을 재즈풍으로 편곡해 들려줬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모두가 소년소녀가 된 듯이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며 앵콜도 하고 격의 없이 즐긴 것이었다.

음악회를 마치고는 국내 IT CEO 25인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어리석음이 마침내 산을 옮기다'란 책을 선물했다. 책 속에는 김진유 화이트정보통신 사장의 이야기도 들어 있다. 직원 1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회사 이미지를 프리미엄급 문화기업으로 높이는데 한몫 거들었다.

IT업체가 음악과 책이라는 문화로 소통하고 기업 이미지를 강화했다. 여기에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로 모시기'와 문화접대비가 그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홍보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수빈씨는 문화로 모시기 운동과 문화접대비가 음지에 있던 홍보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

할을 했다고 단언했다. 또, 기업과 고객이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선 '동반자'로 가는 징검다리가 돼줬다고도 했다.

“예전엔 기업들이 고객관리를 위해 골프 부킹 같은 걸 많이 했죠. 골프채나 공을 선물하기도 하고,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술자리를 대신 결제해주는 어두운 관행도 비즈니스 세계의 관행이었죠. 그러다보니 노출을 꺼리는 분도 많고, 비용대비 효과가 시원찮았죠.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음악회 후 관련 업체에서 기획이나 진행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감동적이었다'는 고객 메일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홍보에 대한 사내 반응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음악이라는 건강하고 열린 접대로 마음이 뿌듯했다고 했다.

접대보다 '나눔', '누림' 같은 부담 없는 용어로 다가서길

그는 “공연을 보면서 손뼉치고 유쾌하게 즐기면서 고객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들끼리도 음악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말한다. “문화라는 게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뿐 아니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홍보인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으로 가는 추세여서 이런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는다며 회사나 고객 모두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다만 문화접대비에 '접대'라는 용어가 붙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점이 아쉽다며 '문화나눔비'나 '문화누리비' 같은 부담 없는 용어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 문화접대비 제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문화접대비는 점차 안착돼 가는 분위기다. 일부 협찬사의 티켓 싹쓸이 풍조로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은 이익의 사회 환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과 문화기업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열악한 예술공연 현장에서도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더욱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 홍보 일선에 선 담당자들의 홍보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고객인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화적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뮤지컬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음악이나 도서 구입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되는 접대비가 3% 이상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화부가 폭탄주나 향응 등 왜곡된 기업 접대문화를 음악·영화·예술공연 같은 문화 친화적인 소비로 유도하는 '문화로 모시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업은 세제혜택과 문화기업 이미지 동시에

예를 들면 매출액 3,000억원인 기업은 총 접대비로 2억원을 지출하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일 경우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00만원을 접대비 한도액인 1억 5,000만원의 10%인 1,500만원을 추가 손비로 인정받아 총 1억 6,50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이 412만원 줄어든다.

지금까지 문화로 모시기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김홍기업이 미래 잠재고객인 청소년의 미술관

람을 위해 1억원 가량 티켓을 구매해 제공했고, 금호렌터카는 문화에서 다소 소외돼 있는 장애인들을 초청 대학로의 연극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과 동행하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Entertainment Expenses로 표현되는 것으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는 지출 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목적이 오락이나 연회 또는 여흥인 경우 모두 포함해서 접대비로 본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대 400만엔 정액한도를 규정해 90%의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

작전명	내 용
뮤지컬로 쏘다	<전국 우수뮤지컬 특별공연> -문화부와 기업 1:1 매칭 부담으로 전국 각 지역의 우수공연 무료관람 기회 제공 -기간/장소: 2007. 12월-2008. 1월/지역별 문예회관 등
대학로 100일 페스티벌	<대학로 100일 페스티벌> -대학로 공연(25편×3개월, 총 75편) 무료 관람 -기간/장소: 2007. 11. 20-2008. 2. 28/대학로 -공연선정: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자유문화 특구제법	<국공립 기관단체 특별 프로그램> -「김홍배의 11시 콘서트(예술의 전당)」, 「세종실로미스츠 신년음악회(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공연관람 및 「열아홉 플러스 박물관에서 꿈꾸다(국립중앙박물관)」, 「교양미술 아카데미(덕수궁 미술관)」 등 박물관·미술관 체험(11.13 현재 113개 프로그램) -기간/장소: 2007. 11. 19-2008. 2/국공립 예술기관 및 단체
특별할인을 사수하라	<특별할인 프로그램> -「오페라 라보엘(국립오페라단)」, 「댄스뮤지컬 오르페오(서울예술단)」, 「사랑방음악회(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성남문화재단)」 등 수험생 대상 20~80% 특별 할인 실시(11.13 현재 69개 프로그램) 기간/장소: 2007. 11. 16 ~ 2008. 2월/전국 공연장

수험생 문화로 모시기...문화 대작전 중

문화접대비는 앞으로 기업의 문화마케팅과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돼 이루어져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부에서는 문화접대비와 함께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문화로 모시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이하 '문화대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문화대작전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세종문화회관 등 국공립 82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연·전시·스포츠·영화 등을 포함한 약 21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화대작전' 관련 세부 일정과 자세한 정보는 문화부(www.mct.go.kr)와 문화로 모시기(www.happybiz.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정선영(young312@korea.kr) | 등록일: 2008.01.07)

“문화의 시대, 세계 도시들 동향을 알려주세요”

문화관광부, 제2기 세계 문화도시 통신원 모집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세계 문화도시의 정보와 소식을 잘 빠르게 전하고 해외 유관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세계 문화도시 통신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통신원들은 오는 16일부터 전 세계 27개국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세계 각지에서 아시아 문화 교류를 위한 침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문화도시 통신원 제도는 현지 전문가들을 활용해 아시아와 세계 각국의 문화관련 정보를 수집,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국제교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한 사업이다.

세계 각국의 새로운 문화적 시도나 동향 소개

지난해에는 유럽 3개국과 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는 총 7명의 통신원들로부터 매달 현지의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송고 받아 활용한 바 있다. 통신원들은 현지의 문화축제나 프로그램, 새롭게 조성된 문화지구나 시설 등을 취재하여 이들의 특색과 배경·운영 방법들을 전해줌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문화적 시도나 동향들을 소개했다.

특정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다원화 하는 차원에서, 아시아를 5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권역별로 혹은 대륙별로 2~3개 거점 도시를 선정,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유럽 6개국의 주요 문화도시를 포함, 총 27개국 39개 도시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우선 20개 국가에서 20명을 모집, 운영한 후 하반기에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6개월간 3건 이상 글 또는 영상 전해야

선발된 통신원들은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3건 이상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글은 A 용지 3~4매 분량, 영상은 3~5분짜리면 된다. 보내온 뉴스는 추진단 홈페이지(www.cct.go.kr)와 웹진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된다.

기존의 원고 양식 외에도 사진과 영상, UCC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아시아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를 구체화하고 공통의 문화적 이슈를 발굴해 나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제2기 세계 문화도시 통신원 모집요강〉

■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 선정대상 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문화 분야 전문가 및 학생(대학원 이상)
- 한국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과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 통신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동일조건인 경우 현지인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함

■ 통신원 혜택

-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 수여
- 소정의 원고료 혹은 활동비 지급
 - 원고 2~3건 채택을 기준, 제출된 원고를 평가하여 원고당 15~20만원 지급
- 2008년 연말, 최우수 활동 통신원 포상 후보
 - 최우수 활동 통신원 2명을 선정, 한국 왕복 항공권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08. 1. 3(목) ~ '08. 1. 13(일)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재직/경력 혹은 재학증명서, 통신원 활동계획서 (영상뉴스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뉴스 샘플 1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Email, Fax 제출
-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교류협력팀, Email: tusarita@mct.go.kr, Tel: 02-3704-3452, FAX: 3704-3419(팩스제출시에는 전화로 확인)
- 전형방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전화면접 예정

(문화관광부, 담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교류협력팀 우설아(3704-3452) | 등록일: 2008.01.08)

문화부 "콘텐츠 산업 육성...5대 문화강국 실현"

인수위 업무보고... "문화예산 최소한 2% 확보 필요"

문화관광부는 8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지원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지원 재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성화 방안, '신문법 폐지 및 대체 입법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난 5년간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의 만연으로 창작 의욕이 크게 꺾인 점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인재 양성 계획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획기적 저작권 보호 대책 추진

강 부대변인은 또 "문화관광부는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최소한 문화예산 2%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소개하고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삭제명령, 불법 P2P

서비스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및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구축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산업화의 상징이던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한국중부발전, 서울시 등과 협의해 2009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

강 부대변인은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대체 입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신문유통원은 주요 신문사 공배사업 참여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문화부는 문화적 물질을 복원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올해 31개 박물관·현대미술관을 무료화하고, 지자체 체육시설 상시개방과 학교체육시설 의무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10% 절감 구체적 실천계획 당부

문화부 업무보고와 관련, 인수위는 김치, 태권도 등 10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 국가브랜드가 대한민국 역동적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약하다고 지적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중 예산 10% 절감,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자체 생산성 제고 및 경영 개선 등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브리핑

오늘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활성화 방안', '신문법 폐지 및 대체 입법 등을 통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국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산업 지원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지원 재원 규모의 획기적 확대를 통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난 5년간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의 만연으로 창작 의욕이 크게 꺾인 점을 지적하고,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인재 양성 계획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최소한 문화예산 2%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삭제명령, 불법 P2P 서비스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및 불법저작물 추적 시스템 구축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 로

문화관광부는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08년에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성 계획 수립 후 2009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신문·방송 경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무료 관람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의 무료 관람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국립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야간 일정시간을 상시 개방하도록 유도합니다.

국민이 생활 체육 참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주·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을 유도하고 공공자금 지원 학교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퇴선수 및 생활체육 지도사를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사로 파견하는 등 방과 후 체육교육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또 스포츠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 세계화 재단'을 설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존 체육인재 육성 재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또 인수위 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질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김치, 태권도 등 10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국가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역동성 이미지를 상징하는데 약하다고 비판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예산 10% 절감,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체 생산성 제고 및 경영 개선 등의 추진의지를 요청하며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손혁기(pharos@korea.kr) | 등록일: 2008.01.08)

문화재청 "왕릉·박물관 등도 무료화 추진"

인수위 업무보고...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당부

문화재청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당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청은 국민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관련, “전국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관람 실시와 연계해 문화재청 소관의 왕릉·박물관·유적관리소 등도 국민 휴식공간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 절차 완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남해안 공동화석지’, ‘조선 왕릉’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문화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 정부는 실용과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한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로 품격 높은 나라를 만드는데 문화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재청과 인수위가 정책을 서로 교감해 이 정부가 문화선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제도 개선’,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 방안’, ‘왕릉 등 무료관람 실시’ 등 역점 추진사항들의 진행상태를 보고했다.

대운하 건설 관련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대운하 태스크포스(TF)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전문.

■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 문화재청 업무보고 브리핑

문화재청은 업무보고에서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제도 개선’,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 방안’, ‘왕릉 등 무료관람 실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문화향유권의 확대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실시와 연계하여 문화재청 소관의 왕릉·박물관·유적관리소 등도 국민 휴식공간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지표·발굴 조사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문화재 조사 절차 완화를 통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남해안 공동화석지’, ‘조선 왕릉’ 등을 추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 정선영(young312@korea.kr) | 등록일: 2008.01.09)

산림청, 휴양서비스·생활환경개선 위한 1만 2천여ha 사유림 올해 집중 매수

- 도시림, 소양댐 탁수원 고랭지 산림 집중 매수

산림청이 올 한해 총 950여원의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올 한해 산림청이 목표로 삼은 사유림 매수 규모는 총 12,700ha로 매수대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안림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는 지구촌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확대되고 잦은 이상기후로 산불, 돌발 병해충, 각종 산림재해가 빈발하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과 같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도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목적의 도시림과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소양강댐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인 가운데 이제까지는 산림경영임지를 중심으로 매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림서비스림과 생활환경 개선림으로 확대하여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는 연중 실시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매매 대상 임야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89천ha이고 이중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3.4%인 1,497천ha로 임업선진국의 약 2/3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올해부터 매년 3만여ha의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면적을 임업선진국 수준(30%)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문의: 국유림관리팀 고연섭 사무관(042-481-4095) | 등록일: 2008.01.09)

서남권, 2020년까지 신성장거점으로 만든다

- 목표 - 무안-신안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축 추진

2020년까지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시대 신성장거점 및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다.

발전계획은 △해양·레저·문화·휴양·쇼핑 등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발전단지·조류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중소형 조선산업·친환경농수산물 등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환황해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목표로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등 4개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서남권을 '광주-나주권', '여수-광양권'과 연계해 국토 서남부에 신 3각 발전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발전비전
서남권을 **환경해권의 신산업 거점(Hub) 및 인구 60만 이상의 자족적 중핵 도시권으로 발전**

- 대상지역 무안-목포-신안 일원
- 계획기간 2008 ~ 2020 (13년)
- 4대과제 ①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②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③지역특화산업 고도화 ④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인 서남권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기본골격인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마련한 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왔다.

발전계획은 2010년까지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까지 투자유인, 2020년까지 투자활성화 등 3 단계로 추진된다.

발전계획에는 재정 5,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민자 9조원이 투입되며,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14조 8,000억원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 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 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관광클러스터 조성

다도해·갯벌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서남권을 자연친화적 해양생태체험 및 휴양관광지로 육성한다.

우선 신안권은 다도해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조성한다. 선착장·야영장 및 마리나 겸용 다기능 항을 조성하고, 숙박·휴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흑산도·홍도 생태공원, 흑산도 유배문화체험공원도 조성한다.

목포권은 문화·역사자원과 목포항을 이용한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 2015년경 목포 신항에 5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며, 해양공원·박물관·바다체험관 등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재팬거리, 우항리 백악기 공룡공원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무안권은 무안 국제공항과 연계한 건강·휴양·쇼핑 중심지로 육성한다. 국내외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가 조성되며, 무안공항 인근에 교외형 명품의류·디지털·가

전 아울렛, 영화관·레스토랑 등 복합 상업시설을 갖춰 국내외 쇼핑수요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창포호 자연생태공원도 조성한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

경쟁력 있는 태양광·조류발전으로 특화해 관련부품·소재산업을 서남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에 17MW 발전용량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해협에는 조류발전시설이 추진된다. 남악신도시는 선시티(Sun City) 시범단지를 조성해 태양광 관련 부품·소재기업의 초기 수요시장을 제공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R&D 기반 구축을 위해 옥암연구단지에 태양광 특화 R&D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에너지연구원 분원을 유치해 연구 인력과 장비를 조기에 확충한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지자체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내외 태양광 부품·소재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중소형 조선, 친환경 농업, 신품산업 등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형 조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형 조선 산업 혁신클러스터 △중소형 조선 기술 지원센터 △중소형 선박 조선 타운 △조선기자재 공동검사·물류센터 등이 건립된다.

친환경 농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형 농업법인, 유리온실 단지, 유통물류 단지 등을 갖춘 '수출 농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향토자원·농촌관광·수출 등이 연계된 농업 비즈니스 파크가 조성된다.

또 양파(무안군), 천일염(신안군) 등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기술개발 및 마케팅 기능과 관련 전문기업의 지원 시설이 결합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도 조성된다.

◆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

무안공항·목포신항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을 환황해권 지역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화물공항기능을 확충해 광주의 광(光)·디지털가전(삼성), 자동차(기아) 산업 클러스터 관련 경량 첨단부품·소재의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하고, 목포신항은 조선기자재 등 중량제품 생산·수출입기지로 개발한다.

또 서남권내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시설을 연결하는 내·외부 순환망 및 중단교통망을 확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목포신항 및 무안공항, 배후물류기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남권을 글로벌 기업의 구매제품 집하 및 공급 기지로 육성해 환황해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

■ 서남권 발전사업

(단위 : 억원)

	세부사업	단계	투자계획('08~'20)			
			계	재정	지방비	민자
관 광 (6)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조성	I	1,466	775	527	164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	*	659	88	107	464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	*	7,490	-	-	7,490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	10,689	743	521	9,425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III	1,043	693	-	350
	대형 복합 쇼핑단지 조성	*	1,800	-	-	1,800
	소 계		23,147	2,299	1,155	19,693
신재생 에너지 (5)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I	1,526	-	-	1,526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 기반구축	*	160	80	80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	86	46	40	-
	남악신도시 Sun City시범단지 개발	*	130	104	13	13
	조류발전단지 조성	*	19,814	271	18	19,525
	소 계		21,716	501	151	21,064
지 역 특 화 산 업 (13)	중소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I	260	220	-	40
	중소형 조선 기술지원센터 건립	*	300	144	136	20
	중소형 선박 조선타운 조성	*	9,500	-	-	9,500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	*	206	150	56	-
	무안군 양파 브랜드화 사업	*	200	118	58	24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	785	433	352	-
	수산물효식품 지역특성화(RIS) 사업	*	27	21	4	2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	303	90	213	-
	천일염 및 염생식품 산업화연구	*	63	40	12	11
	신안군 천일염 특구 조성	II	227	110	100	17
	조선기자재 공동검사·물류센터 건립	*	100	50	40	10
	농업비즈니스 파크 조성	III	175	75	75	25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조성	*	58	23	18	17
	소 계		12,204	1,474	1,064	9,666
물 류 (7)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 조성	I	536	536	-	-
	석재 가공 유통단지 조성	*	248	-	-	248
	대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	900	-	900	-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	*	14,040	-	-	14,040
	송공항 건설	*	325	325	-	-
	기초소재 복합가공·물류센터 건립	II	150	-	-	150
	신안 섬지역 연도·연륙교 건설	*	24,663	10	-	24,653
	소 계		40,862	871	900	39,091
기타	서남권 교육여건 개선	I	463	287	33	143
	합 계		98,392	5,432	3,303	89,657

■ 주요 인프라 사업

(단위 : 억원)

세부사업(사업기간)	투자계획('08~'20)			
	계	재 정	지방비	민자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08~'19)	237	-	-	237
목포신항 개발('93~'20)	6,969	5,444	-	1,525
목포항 정비('83~'13)	1,237	1,237	-	-
오송-목포 호남 고속철도 건설('06~'17)	103,834	103,834	-	-
목포-보성 철도 건설('02~'20)	12,263	12,263	-	-
무안-광주 고속도로 건설('02~'08)	708	708	-	-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02~'13)	13,848	13,848	-	-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02~'15)	4,236	4,102	134	-
흑산 일주도로 확포장('84~'08)	10	10	-	-
죽교-고하 목포대교 건설('04~'12)	2,290	2,290	-	-
지도-임자 연도교 건설('09~'14)	1,325	1,325	-	-
신안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97~'10)	486	341	145	-
합 계	147,443	145,402	279	1,762

(국무조정실,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주진단(2100-8761-62) | 등록일: 2008.01.10)

이경숙 인수위원장 “문화대국으로 가는 기틀 만들자”

간사단 회의… “당선인, 대운하 모든 절차 밟겠다 생각”

이경숙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제와 문화, 교육과 문화가 균형 있게 같이 가는 총괄적 틀을 갖추자”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정과제 도출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정신문화 가치의 상승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잘 살아도 돈만 많은 나라와 선진국의 차이를 보면 정신적 가치와 문화로 판가름 난다”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여러 조건들이 좋아져서 전체 문화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 만들고 한분, 한분이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밑그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적 관점의 국정과제 도출

그는 이어 “분과별로 국정과제가 도출되지만 분과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의견을 토론하고 통합적인 전체 틀 속에서 도출해 달라”며 “매일 강행군으로 잠재력을 전부 발휘해야 하는 입장을 알지만 우리가 쏟는 열정과 희생이 미래를 위해 모두 도움 된다는 생각하면 고단이 감수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당선인 생각은 대운하는 모든 절차 밟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당선인 어제 뵙고 나와 대운하에 대한 말을 공유하겠다”고 전제한 뒤 “국내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사를 보면 서둘러 여론 수렴도 안하고 빨리 추진하는 거 같은 인상을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분명히 어제 뵙고 들은 건 모든 절차를 밟고 민간투자 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취임 후 1년은 걸리지 않겠냐고 확실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투자 20% 확대 환영”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20% 확대보도에 대해 “이는 ‘747 공약’과 결부해 7%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무적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계속 투자를 증폭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름 더는 행보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투자가 늘고 기업이 열정을 다해도 그걸 직접 담당하는 분은 노동자기 때문에 노·사·정의 화합하는 분위기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돼야 투자로 인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당 분과도 노동자 이해 폭을 넓히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사고 사후 대책 만전 기하라”

이천화재사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방 시설안전준공 되기도 전에 검사가 끝났다는 보도를 보면서 현장도 안가보고 어떻게 준공검사 했는지 생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현장 중심으로 하고 원인 제공하지 않겠다는 마음 대비와 여러 운영 방법을 각오해야 한다”며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담당분과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특히 유족 위로와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순모(soomong@korea.kr) | 등록일: 2008.01.10)

유원지에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수목원도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고, 운동장 내에도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유원지 및 운동장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자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유원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을 주5일제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최근 변화된 국민의 여가수요에 맞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1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운동장에도 설치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집회장(예식장·회의장), 전시장(미술관·과학관·기념관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0만㎡ 이상 100만㎡ 미만 운동장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으로 한정해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수익시설의 확대 허용은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해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재정의 확충으로 운동장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폭 10m 이상→8m 이상)해 불필요한 산림훼손 방지와 원활한 시설 확충이 가능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팀장 유병권·사무관 김상인(2110-8519) | 등록일: 2008.01.10)

“대운하 여론수렴 등 모든 절차 밟아 추진”

인수위 “‘밀어붙이기식 보도’ 사실 아니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언론의 ‘밀어붙이기식 보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는 10일 “신중히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당선인 생각은 대운하는 모든 절차 밟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사단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당선인을 어제 뵈고 나와 대운하에 대한 말을 공유하겠다”고 전제한 뒤 “국내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 걸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사를 보면 서둘러 여론 수렴도 안하고 빨리 추진하는 거 같은 인상을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분명히 어제 뵈고 들은 건 모든 절차를 밟고 민간투자 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취임 후 1년은 걸리지 않겠냐고 확실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중하게 여론수렴 할 것”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장 대운하가 착공 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구상이 서둘러 추진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기에 당선인이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신중히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또 한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대운하 태스크포스(TF)가 있고 그동안에도 계속 관련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전문가 면담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인수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초에 세계적 외국 전문가들까지 불러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찬성론자 뿐만 아니라 반대론자까지 불러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추부길 당선인 정책기획팀장도 평화방송에 출연, “1년 정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준비하는 단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순모(soomong@korea.kr) | 등록일: 2008.01.10)

버시바우 대사 “한국 비자면제국 최우선 지정 최선”

이경숙 위원장 예방… “이 당선인 취임 후 조기 방미 희망”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10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해 40여 분간 의견을 나눴다.

“양국관계 한 단계 높은 차원 진입할 것”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 오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밝혔듯이 부시 대통령은 당선인께서 대통령 취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동맹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핵폐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비자면제국 여건 조성 판단”

한편, 한국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서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사로서 재임하는 동안 비자면제국 신청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비자면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버시바우 대사 예방에는 미국 측에서 에이미 콘라드 서기관이 동행했으며, 인수위 측에서는 박진 외교통일안보 분과 간사가 배석했다.

(국정브리핑, 안순모(soommong@korea.kr) | 등록일: 2008.01.10)

[서울특별시] 북경에서 서울을 만난다

- 서울시, 북경 주중 한국문화원내 서울문화관광 홍보관 ‘首爾文化樂園(수이문화락원)’ 개관

서울시(경쟁력강화추진본부)산하 서울관광마케팅분부는 서울시의 선진도시 이미지와 서울시 내 대표적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구성한 서울문화관광 홍보관(首爾文化樂園)을 2008년 1월 1일 (북경)주중한국문화원 1층 라운지에 개관하였다.

서울문화관광 홍보관(首爾文化樂園)에는 서울의 주요 명소인 한강, 인사동, 광화문, 청담동, 홍대앞 문화거리 등을 표시한 ‘문화지도’를 통해 누구나 서울의 지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디지털 포토 앨범과 다양한 동영상으로 서울관광지의 이미지와 관광 코스를 역동적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및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와 각종 문화 공연 소개 코너, 한류 음악 감상 코너, 한류스타 피규어 전시 코너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한글 플래시 게임 코너, 인터넷 관광정보 카페는 북경 현지의 젊은이들의 발길을 오랫동안 붙잡으며 관광 서울을 맘껏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개관 첫 날 이 곳을 찾은 28세 직장인 양려나(북경거주)씨는 “평소 한국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방문해서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문화관광 홍보관(首爾文化樂園)에 와보니 어느 곳을 관광하면 좋을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졌다”며 홍보관을 둘러보며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고 있었다.



서울문화관광 홍보관 사진 (정면)



서울문화관광 홍보관 사진 (측면)

서울시는 북경시와의 자매도시로서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기간, 서울문화관광 홍보관을 활용한 서울-북경 공동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현지인뿐만 아니라 북경에 방문한 외

래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중국지역에서의 서울시의 관광 마케팅 활동 기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문의: 02-560-8122).

(서울특별시, 담당: 경제력강화본부 경쟁력강화본부 서호정(560-8122) | 등록일: 2008.01.09)

[부산광역시] 2008년 부산발 크루즈가 뜬다!

- 팬스타연안크루즈, 팬스타부산 주말크루즈

- 2008년 3월부터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라인을 잇는 한려수도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코스와 시즌별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며 전국 연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는 일본의 주요 온천지 등 관광명소를 위주로 편성될 예정

부산-오사카간 두 척의 카페리를 운항하는 (주)팬스타라인닷컴은 지난해 12월 21일 일본에서 추가선박을 도입하여 개조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 3월말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순항하는 연안크루즈를 시작할 예정이며 매월 한 두 차례는 일본 등 국제항로에 크루즈선을 투입하여 국제크루즈도 운항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부산-오사카 항로 증편에 따라 아쉽게 중단되었던 부산연안 주말크루즈도 이번 연안크루즈 시작과 함께 재개되게 된다.

팬스타라인은 2004년 12월, 한국에 최초로 부산주말 크루즈를 취항하여 1박 2일 동안 태종대, 물운대, 광안대교, 해운대 등 부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맞는 수천발의 불꽃놀이와 이국적인 선상 이벤트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커다란 감흥을 줌으로써 크루즈산업의 저변을 확대한 바 있다.

팬스타라인이 시작하는 연안크루즈는 한려수도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코스로써, 부산-통영-여수-완도-제주라인을 잇는 항로를 기본항로로 하고 시즌별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며 전국 연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관광지를 배경으로 하는 연안크루즈 코스로 국제크루즈는 일본의 주요 온천지 등 관광명소를 위주로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선상공연이나 다양한 크루즈체험과 함께 해양관광과 연계되는 국내 관광을 함으로써 한국적인 크루즈문화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신선한 해양관광문화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팬스타라인이 연안 및 국제 크루즈에 투입하는 선박은 전장 130m, 총톤수 약 15,000톤으로 고급 2인실 스위트 객실과 4인, 6인의 가족객실, 단체 기업이 이용 가능한 단체실까지 총 500여명 수용이 가능하며, 레스토랑, 실내공연장, 극장, 문화체험실, 어린이를 위한 시설 등과 쇼핑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비될 예정이다.

또한 연안크루즈시에는 총 4~5일간의 크루즈 항해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일자의 선택크루즈가 가능하며, 차량을 가지고 승선하여 원하는 기항지에서 하선시 고객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향이 가능하게 된다.

2008년 새해에는 가장 자유로운 여행, 꿈의 크루즈를 계획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 여객관련 문의: 부산 1577-9666 / 051-462-5482 김보중 부장 / 박정희 과장, 서울 02-775-6811 이창주 차장 / 김수진 주임

※ 홈페이지: www.panstarcruise.co.kr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김귀옥(888-3514) | 등록일: 2008.01.02)

[부산광역시] 국제문화도시 부산!! 2008 국제문화행사 풍성

- ◆ 제3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6.25~6.29), 제3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8.8~8.12)
- ◆ 제13회 부산바다축제(8.1~8.10), 제9회 산국제록페스티벌(8.2~8.3)
- ◆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10.2~0.10),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10월중)
- ◆ 부산불꽃축제(10월중), 2008해맞이 부산축제(12.31~1.1)

부산시가 올해 첫 행사인 '2008해맞이 부산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한 해에도 대형 문화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 '국제문화도시, 부산'의 확고한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올해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행사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등 국제문화행사를 집중 육성하고, 해맞이 부산축제와 부산바다축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 지역축제를 특화시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산불꽃축제와 지난해 준공된 광안리 바다 빛의 미술관 등 관광명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메인행사인 부산행사(5.3~5.4)를 일본의 골든 연휴기간에 개최하고 제3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6.25~6.29)를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시 개최하는 등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행사들의 개최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 4~11월, 한·일 7개 도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선린우호와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가 처음 일본에 파견된 지 400주년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해로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한·일 7개 도시에서 열린다.

부산-서울-도쿄를 잇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에서는 조선통신사의 무사항해를 비는 해신제가 원형대로 재현되고, 한·일 두 나라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선통신사 행렬을 중구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펼치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는 뱃길의 출발점이었다 부산의 역사성을 살린 관광 상품화도 본격 추진된다.

▶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 6.25~6.29 해운대 벅스코 전시장

우리 축제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성을 증명하는 축제박람회가 벅스코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축제박람회는 전국의 대표적인 우수축제와 해외축제 등의 축제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전통 국악, 난타 등의 공연이벤트, 축제관련 사례발표, 기술 마케팅 강좌 및 심포지엄, 축제 콘텐츠 경연과 축제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전국 축제의 진수를 맛보일 예정이다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 8.8~8.12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 시민회관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마술을 일반 시민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마술의 공간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매직페스티벌은 세계 최초로

야외(해운대 해수욕장) 무대에서 초대형 일루전 매직을 선보이는 마술사상 유례없는 개막식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 그리고 야외 광장을 이용하여 페스티벌 기간 내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환상적인 마술의 체험공간인 “매직테마파크”와 인기 매지션들의 팬미팅, 팬사인회, 매지션 포토존 운영 등 미래 마술의 메카가 될 부산에서 관람객들을 신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 **부산국제영화제 : 10.2~10.10, 해운대·남포동 극장가 등 주요상영관**

부산의 가을엔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5대 영화제 진입을 목표로 영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 65개국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선보일 예정이며, 20만 이상의 관객이 찾을 예정이다.

▶ **부산국제록페스티벌 : 8.2~8.3, 다대포해수욕장**

여름도시 부산에 ‘바다와 젊음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는 록의 바다가 펼쳐진다. ‘록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축제 한마당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다대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열린다. 록의 역동성과 부산의 해양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국내외 유명 록아티스트와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젊음과 음악의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는 해변 록 콘서트, 핸드 프린팅 제막식, 록 프라자, 록 클럽 파티, 사전 홍보 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 **부산바다축제 : 8.1~8.10, 해운대 해수욕장 등**

바다와 함께하는 ‘여름도시, 부산’에서 맘껏 축제에 빠져보자. 부산바다축제는 바다도시 부산의 역동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국제 최대규모의 해변축제로서, 화려한 불꽃놀이에서부터 시민행렬, 바다체험행사와 해변노래자랑, 해양문학제, 해양스포츠 등의 부대행사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올해는 여름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힙합페스티벌과 만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의 여름 프로그램을 적극 보강할 계획이다.

▶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 10월중 자갈치시장 일원**

‘여는 마당, 오이소 마당’ 등 관광객 체험 중심의 4개 마당 3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현대화로 새 단장된 자갈치시장이 관광명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 **2009해맞이 부산축제 : 2007.12.31~2008.1.1,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의 특성을 살린 겨울철 대표적 해양관광 문화축제로, 타종식 및 선박 해상퍼레이드, 축하비행 등 일출 문화행사를 펼친다. 특히 올해는 무자년 새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려했고 찬란한 신년 불꽃쇼가 부산대교 옆의 북항에서 펼쳐질 것이다.

▶ **부산불꽃축제 : 10월중(매년 1회 개최), 광안리 해수욕장**

‘2005APEC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광안리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환상적인

불꽃쇼가 올해에도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원에서 수준 높고 예술성 있는 첨단 불꽃 축제로 개최된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의 관람으로 세계적인 불꽃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불꽃축제는 타 불꽃행사와 차별화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부산국제연극제(5.3~5.15, 문화회관 등, 8개국 25작품 공연, 공식초청 공연·워크숍·부대행사 등) △부산국제해변무용제(7.26~8.2, 광안리 해수욕장 등, 8개국 42작품 공연, 개막공연·초청공연·워크숍 등) 등 굵직한 국제문화행사가 열려, 많은 국내·외 관계자와 언론,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로 열린 부산'의 도시브랜드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문화예술과 손현근(888-3472) | 등록일: 2008.01.04)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중흥 위한 '10대 비전사업' 본격 추진

◆ 1월 7일 14:30, 시청 24층에서 서부산권 등 개발업무 전담T/F인 '전략비전 추진본부' 현판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부산시에서는 동남권 산업벨트로서 21세기 부산의 산업 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강서·기장지역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업무 지원과 북항 및 원도심의 개발지원과 남해안 특별법 발효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전략비전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10대 비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대 비전사업】

- 1) 강서 첨단운하·물류·산업도시 건설
- 2) 북항 재개발 및 KTX 지하화
- 3)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 4) 동부산 관광·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 5) 부산시민공원 조성
- 6) 영화·영상타운 조성
- 7) 문현금융단지 조성
- 8) 광역교통망 확충
- 9)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 10) 2020 하계올림픽 유치

오늘(1.7) 오후 2시 30분 시청 24층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될 『전략비전 추진본부』는 오랫동안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아젠다로 채택된 강서 지역 첨단운하·물류·산업도시 건설업무와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산업물류운하도시팀,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 육성과 동부산권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도시팀, 북항재개발을 비롯해 원도심개발업무 등을 전담할 북항 및 원도심개발팀, 남해안권 종합발전 및 가덕도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남해안개발 기획팀 등 3급을 본부장(초대본부장 정진식)으로 4개의 팀(팀장 4~5급) 등 22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한반도 대운하의 기종점이 될 강서지역을 첨단운하·물류·산업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국가과학연구단지로서의 기장지역에 과학기술 거점도시로 개발하며, 북항재개발 및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남해안권의 종합개발 등 부산지역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전략비전 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미래의 부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광역시, 총무과(888-2563) | 등록일: 2008.01.07)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대적 정비 및 「사과표시 등급제」 도입

대구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그동안 많은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로 외국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시설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숙박업소에서 내 집같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적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사과표시 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관광호텔의 경우 신축업소는 국제수준의 영업시설을 갖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기존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동시 증축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숙박업소(1,122개소) 중 모텔급 대형업소 246개소에 대하여는 1층에 레스토랑 등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호텔로비와 같이 숙식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객실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숙박편의와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win Bed 시설 설치를 신축업소는 의무화하고 기존업소는 적극 권장하여 단계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축 숙박업소에 대하여 관광객 이용이 용이한 먹거리와 연계하여 집단지역 설정 건립을 유도하고 객실침대, 침구 등 숙박업소의 내·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바꾸고 현수막 등을 통한 대실표시, 외관상 혐오감을 주는 주차장 차광막이를 2~3m로 축소정비하는 등 선정적인 시설을 말끔히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는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축 시 1억 원, 개·보수 시 5천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지난해 국비 35억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였으며,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상수도요금 20% 감면, 재산세 감면 등 행·재정적인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숙박업소의 차등화 관리로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업시설 환경 및 친절서비스 관민 평가단을 구성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전국 최초로 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의 상징인 사과모양 로고를 1급 5개(숙박요금 5만 원 이상), 2급 4개(4만 원), 3급 3개(2.5만~3만 원), 4급 2개(2만 원)로 제작하여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출입구에 부착하여 고객들이 요금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숙박요금, 영업장객실 등을 소개하여 줄 계획이다.

또한, 친절서비스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종사자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接客대에는 외국인 통역이 가능한 종사자를 배치하고 지정숙박요금표 게시, 종사자 단정한복장 착용 등 친절서비스가 생활화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 국내외 각종 행사참가 관광객이 교통편의를 이유로 경주 등 인근지역에 숙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와 관광여행사, 행사참가단체 숙박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숙박비, 음식비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행사참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 구·군 단위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숙박협회와 공동으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계도하고 매년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 ISO 굿스테이 인증업소로 지정하고 업주표창, 위생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숙박업소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손님맞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행사 시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도 치밀한 사전 숙식대책을 수립해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803-4112) | 등록일: 2008.01.07)

[광주광역시] 2008년도 광주시예산 어떻게 쓰이나

- 2007년 대비 11% 증가한 '2조5천830억원' 규모
- 복지실현·인재육성·경제활성화 최우선 투자

내년도 광주시 살림은 민생관련 '사회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단기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2008년도 광주시예산 규모는 2007년 대비 11%가 증가한 2조5천830억원 규모로, 시민들의 기초육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와 '6대 중점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배분·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를 국내 최고의 '실버피아(Silverpia)'로 만들고 3대 주력산업을 주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6대 사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6대 중점 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1등 사회복지 구현'을 목표로 한 복지정책으로 5천862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에 452억원, 출산장려 시책으로 보육·아동에 1천250억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 등에 3천965억원, 빚고을 실버타운 및 북구노인복지타운 건립에 1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사회복지 사업은 특히 소비적 지원방식에 머물지 않고 실버시티 조성·의료산업 집중육성 등 '생산적 복지정책' 형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인재 육성 및 민주정신선양사업 2,210억 지원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4천69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에 2천483억원 그리고 지역발전의 장·단기 포석이라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민주정신 선양사업에 2천210억원 등을 투입한다. 특히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5개 자치구별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남권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는 4천65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도로망 확충(신규 7건-253억원, 마무리 5건-258억원, 계속사업 1,186억원)과 도시철도 건설·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구축 등에 2천27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2천379억원이 소요된다.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한 1천973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민선 3기 이후 집중 추진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4대 전략산업 등에 349억원, 산업인프라구축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1천202억원 그리고 R&D특구지정 등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해 422억원이 쓰여진다.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환경도시 조성 전략배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도시 건설’ 관련 사업에도 2천214억원이 투입된다.

2009년까지 광주천(19km 구간)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 및 교량경관 조성 등에 245억,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 939억원과 함께 1천만그루 나무심기·도시숲조성·도심공원조성·하수도정비사업 등 도심환경개선사업에 1천3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의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도 9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민 문화공간 기능을 수행하게 될 ‘빛고을 문화커뮤니티 센터(舊 구동체육관 부지)’ 건립 등 문화인프라 구축에 361억원, 문화산업육성·문화예술축제활성화·문화인육성·전국장애인체전 등에 5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규모 증가 속에 자주채원인 부동산교부세 미교부, 주행세 감소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회 구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공보관실(613-2150) | 등록일: 2008.01.01)

[광주광역시] 2008년은 문화수도 조성사업 본격 추진의 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007성과와 2008계획』

광주시는 지난해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당 착공과 함께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에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지난해 10월 특별법시행을 위한 광주시조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을 확정짓고 문화수도로 도약할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전문가들로 T/F를 구성·운영하여 市 자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강,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문화컨텐츠산업,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용역 실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대폭 반영한 종합계획을 확정짓고 문화전당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전통과 특성을 토대로 문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2023년까지 총 5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 52,912억원 (국비 27,679, 지방비 7,896, 민자 17,337))

주요내용은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운영과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광주시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세부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연차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올해 3월경 착공할 아시아문화전당과 복합문화공간인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는 등 내·외적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당 :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8,199㎡, 건립비 7,984억원(국비)
-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 건축연면적 15,263㎡, 건립비 473억원(국·시비)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의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나 문광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시민, 관계 전문가와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실(613-3430) | 등록일: 2008.01.01)

[광주광역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 열려

- 광주·전남 '21세기 한국관광의 중심지' 도약
- 내국인 3,300만명 외국인 14만명 유치 목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1월 11일부터 13까지 3일간 광주전남의 27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역 방문의 해'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광부에서 매년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광주와 전남 양 시·도가 지역 관광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양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문광부장관, 서울시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국회의원 등이 선포식에 참석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기원한다.

선포식 종료 후 부대행사로 국내 유명 가수들이 다수 출연하는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이번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 관광 수요지인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남도를 '21세기 한국의 문화·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 및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관광홍보 전략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의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초대형 관광홍보부스와 지역 특산품전이 동시에 열려 광주·전남의 다양한 여행 정보는 물론 지역 내 장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관광 기념품도 접할 수 있다.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남도 특산품전과 맛깔 나는 향토음식 시식코너도 함께 운영하는 등 남도의 맛과 멋을 흠뻑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수도권 주민들을 기다린다.

한편, 시·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전남은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SOC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문화예술과 웰빙 관광이 증가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관광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면서 "특히, 2008년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광주 비엔날레, 친환경 메카로 불리는 전남 함평의 제1회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전남 고흥 우주센터의 인공위성 발사,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장애인 체전 등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지역별·계절별로 광주 김치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보성 다향제, 담양 대나무축제, 남도문화잔치, 무안 백련대축제, 진도의 신비한 바닷길축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대규모 행사와 축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묶어 3개 분야 11개 코스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수학여행단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의 150개 관광지를 선정하여 투어패키지 개최 및 관광지에서 행운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면서 "금번 선포식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여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내국인 3,300만 명 외국인 14만 명 유치 목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민이 똘똘 뭉쳐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광과(613-3620) | 등록일: 2008.01.09)

[강원도] 강원도 농촌관광 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 2007 「도·농교류 우수마을」 국무총리상 및 장관상 수상 -

농림부가 주관한 2007년도 도농교류 농촌사랑 우수마을 평가에서 전국 9개 수상마을중 우리 도가 국무총리상과 농림부 장관상의 2개 마을이 수상되었다.

이번 수상은 농림부가 전국의 도농교류 농촌사랑 우수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국 9개 수상마을중 우리 도에서는 평창군 봉평면 유포3리 수림대 마을이 국무총리상인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표창패와 마을발전기금 3천만원을 받게 되었고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매화마을이 농림부장관상과 함께 마을발전기금 2천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도농교류 농촌사랑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2007년 “제6회 농촌 마을가꾸기” 평가에서 5개 마을이 수상되어 2년 연속 전국 최다마을이 수상되었고, 또한 지난해 5월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7도농교류 페스티벌에서 전국최우수도 선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농촌관광 분야에서 전국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이 같은 성과는 강원도 농촌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한 농촌관광시책을 전국 최초로 지난 '99년부터 역점을 두고 대대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강원도형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강원도 농촌관광 성공의 모태이며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내 녹색농촌체험마을 56개소 대부분이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이고, 기선정된 163개 우수마을 또한 농촌 체험마을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는 농촌관광객 유치목표를 '10까지 18백만명으로 잡고, 강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어업정책과(033-249-2705) | 등록일: 2008.01.04)

[강원도] 전국 학교 수학여행 사전답사 강원도 방문 러시

강원도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학교 수학여행유치 마케팅이 무자년 새해 벽두부터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추진한 관광설명회는, 초청 대상자를 기존의 여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수학여행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 학년부장, 운영위원장 등 4대 도시(대전, 인천, 대구, 수원)에서 80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서, 지난해 관광설명회에 참석했던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등 실질적인 수학여행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도내 주요 수학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수학여행 담당관 사전답사 일정>

- 1. 8~1. 9 수원시 중학교교장협의회 40명
- 1.15~1.17 경상북도 교육청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40명
- 1.25~1.26 서울 강남교육청관내 중학교 교장단 35명
- 1.28~1.29 안양/과천 중학교교장협의회 40명

이번에 찾게 되는 주요방문 지역은, 그 동안 전국적인 수학여행지로 각광 받아 온 설악산 지역은 물론, 최근 체험활동 위주의 수학여행지 패턴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방문하여 몸소 느끼고·체험하는 등 수학여행지로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고 체크할 계획이다.

※ 주요 방문지

- 춘천 도립화목원, 막국수 체험박물관, 애니메이션 박물관
- 강릉 대관령 박물관, 참소리박물관, 하슬라 아트월드 솟대까기 체험

- 동해 천곡동굴, 추암공원, 망상오토캠핑장
- 속초 화랑도체험장, 대조영 촬영장(병사체험), 실향민 문화촌
- 평창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대관령 양떼목장(양먹이주기 체험)
- 양구 박수근 미술관, 국토정중앙천문대(별자리체험) 등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참가자 등 강원도와 인연을 맺은 축적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내 신규 수학여행지에 대한 수시 정보제공 등 맺은 끈을 끊임없이 이어 가도록 하고, 특별히, 금년에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를 수행여행지로 다녀간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UCC동영상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내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와 강원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다.

(강원도, 관광마케팅사업단(033-249-3381) | 등록일: 2008.01.08)

[경기도] 경기-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기본방향 합의

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사 입지와 초대 청장 임명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이날 만난 회동은 이완구 충남지사가 일본방문에서 귀국하는 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 공관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미 양 도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지역에 입지하고,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도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조기 확정과 오는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추진기획단 설치, 개청 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 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 도지사의 합의는 양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031-249-4572) | 등록일: 2008.01.10)

[충청남도] 서천지역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포함 확정

서천지역을 포함하기 위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2004년 확정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당시 면적제한 법규정 때문에 서천군이 제외되어 그간 지역주민의 불만과 계속되는 건의에 따라 ‘서천지역을 내

포문화권에 포함'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한 결과이다.

충남도는 지난 9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18개 중앙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내포문화권역인 충남 서산·보령시, 홍성·예산·태안·당진군 등 2개시 4개군 955km² 일원중 기존 권역을 조정하여 서천군이 추가된 2개시 5개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변경지정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내포문화권은 충남 서북부 가야산 주변지역 등 해안지역으로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 불교문화의 전래와 관련된 유적과 솔피성지(김대건 신부 탄생지), 해미순교지 등 많은 역사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상업 등 서민문화의 전승지역이자 서해안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곳으로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 내포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특정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역주민의 불만은 물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하여 금번 기존 권역조정을 통한 특정지역 변경이 확정되므로써 낙후지역발전 촉진과 지역불만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이번에 변경되는 특정지역에는 우리나라 3대 명창중의 한 계보인 중고제 전수관건립 등 서천군에 9개 사업, 홍성군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임득의 장군 묘역정비 등 4개 사업, 예산군에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1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14개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내포문화권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46개 사업에 1조 5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14개 사업 502억원이 추가되어 60개 사업 1조 1,007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그중 국비 4,553억원, 지방비 5,619억원이 지원되고 835억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다.

충남 서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에 꽃피었던 찬란한 문화의 실체가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재조명 받게 될 전망이며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1,000억원, 일자리 창출 2천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충청남도, 문의: 건설정책과 홍승원(042-251-2749) | 등록일: 2008.01.01)

[충청남도] 충남! 2020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확정

'충남'이라는 화폭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3×3의 田자형 개발축'의 형태가 디자인된다.

충청남도를 '3×3의 田자형 지역발전축'과 '4대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북부권 편중 구조에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지역발전방향의 기본내용을 담은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12월 28일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된 수정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도종합계획에 수용하면서 지난 2001년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 이후 행정도시 건설, 도청이전

확정, 국가기간 교통망 변경, 환황해권 시대 개막, 주5일제 시행 등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본 수정계획 기본구상에는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 충남 구현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평택~행정도시, 안성~행정도시, 보령~공주간 등 고속도로, 도청신도시에서 동·서·남·북측 고속화도로,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충청선(보령~조치원), 서해선(야목~예산) 등 철도, 보령신항, 대산항, 장항항 등 SOC 구축을 기반으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남공주 역세권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기호유교문화 유적정비, 한방바이오밸리, 한산모시콤플렉스 개발 등 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력증진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동안 84조 4,344억원이 투자되고, 부문별로는 사회인프라 구축 38.8%,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 24.1%, 산업부문 16.6%, 문화관광부문 8.4%, 환경부문 6.6%, 생활복지부문 3.1%, 자원개발부문 2.4%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조 2,634억원(46.5%), 지방비는 11조 5,733억원(13.7%), 민자 등 기타가 33조 5,977억원(39.8%)이다.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충남은 ▲인구가 2005년 19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5년 38조 1,400억원에서 98조 9,700억원, ▲1인당 GRDP는 2005년 1952만 4천원에서 3958만 8천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63.3%에서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도에서는 내실 있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0여명의 道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십 회의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그 시안을 마련하였고, 道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의회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도청신도시~천안·태안·평택·금산간 고속화도로’, ‘서해산업선 철도’ 등에 대하여 진통을 겪었으나 SOC사업에 대한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과 체계적 전략으로 대응하여 도 차원의 장기 발전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하였다.

이에 최종안에는 지역균형 발전, 도청이전 신도시,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등 충청남도가 요구한 안으로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앞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충청남도의 미래상과 발전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와 시·군에는 지역발전의 정책방향의 기본이 되면서 중앙정부에는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되며 민간기업에는 지역개발 정보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건설, 환황해권시대 개막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에 맞추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역동적 충남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문의: 혁신정책기획관실 윤여권(042-220-3802) | 등록일: 2008.01.03)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와 당진군에 설치 합의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만찬회동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청사입지는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에 입지 ▲初代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공동 임명 ▲개발계획의 조기확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 등이다.

이완구 지사는 청사의 입지와 관련, 당진군에 설립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당진지역에 설립되는 청사에서 충남은 물론 경기지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업무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년에 시 승격이 예정된 당진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시 승격과 맞물려서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은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앞당기되 늦어도 7~8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초대 청장의 추천권은 경기도에 양보하고, 청사위치를 당진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당진군이 명실상부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이완구 지사가 태안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2박 3일간의 일본 환경성, 후쿠이현 방문 귀국길에 곧바로 이어져 배석자 없이 2시간 넘게 시종 웃음이 넘쳐 나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 도가 함께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 중앙 공동대응, 청의 하부조직, 향후 로드맵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양 도의 흔쾌한 합의는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안시 양 도지사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함으로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공조에 이은 것이어서 2개 시·도 공동 추진의 경우 흔히 있는 이해 충돌의 우려를 지휘부에서 직접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다른 시·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문의: 경제정책과 유득원(042-251-2664) | 등록일: 2008.01.10)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이용 여행상품 공모전 결과 발표

- 최우수상에 KO & C, 남해관광 여행사, 11일 서울 코엑스몰 시상식 -

다도해 천연자연의 비경과 풍광을 자랑하는 흥도가 외국인들에게 선보이며, 수도권의 골짜기를 겨냥한 여행상품이 운영된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1월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 전라남도 여행상품」을 공모한 결과, 총 8개 상품이 접수되어 이중 5개의 여행상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에는 인바운드 분야에서 “KO & C 여행사”의 「한국의 보물, 다도해 홍도 & 흑산도 섬 투어」 상품이, 인트라바운드 분야에서 “남해관광 여행사”의 「남도항공 그린 투어」 상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우송관광 여행사’의 「그린투어 방한상품」, ‘세방여행사’의 「도쿠시마 무안 교류차타」, ‘삼호관광 여행사’의 「호남문화기행」의 3개 상품이 입선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보물, 다도해 홍도 & 흑산도 섬 투어」 상품은 홍도 & 흑산도를 주 테마로 한 상품으로 섬 일주를 비롯한 목포 등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일주하는 이색적 한국테마 상품이며, 「남도항공 그린투어」 상품은 수도권 골프들을 대상으로 무안CC를 활용 제주도 골프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골프투어 상품이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모객가능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여행상품을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이 전남관광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선정된 여행상품은 관광객 유입효과와 함께 공항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주어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과(286-5230) | 등록일: 2007.01.07)

[전라남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 열려

- 남도 '21세기 한국관광의 중심지' 도약
- 내국인 3,300만명 외국인 14만명 유치 목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1월 11일(금)~1월 13일(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과 홍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역 방문의 해」 사업은 2002년부터 각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광주와 전남 양 시·도가 지역 관광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남도를 '21세기 한국의 문화·해양·생태관광의 중심지' 및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27개 전 시·군·구가 참가하는 초대형 관광홍보 박람회가 3일 동안 열려 광주·전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지역의 특산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남도 특산품전과 각 시군의 향토음식 시식코너도 함께 운영하게 될 계획이어서 남도의 맛과 멋을 한껏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포식에서는 앙드레김, 최불암, 강부자씨 등 유명인사들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간 홍보활동을 시작하고, 솔항공 여행사 등에서 모객한 500여 명의 관광객이 선포식 후 1박 2일 일정으로 낙안읍성과 보성 녹차밭 등 남도여행을 떠나게 된다.

주동식 전남도 주동식 관광문화국장은 “그동안 광주 전남은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SOC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무안 국제공항 개항, 서해안 고속도

로와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관광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2008년에는 친환경 메카로 불리는 함평의 제1회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고흥 우주센터의 인공위성 발사, 광주 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집중 홍보하고, 수학여행단, 외래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테마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관광 트렌드가 가족 위주의 체험·생태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등 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내국인 3,300만 명 외국인 14만 명 유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민이 뚝뚝 뭉쳐 손님 맞을 준비를 차질 없이 갖추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과(286-5220) | 등록일: 2008.01.10)

[전라남도] 일본 주요 여행사 무안국제공항 이용 상품개발 나서

- 1.11 ~ 13일까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주요 관광자원 답사

전라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시코쿠 지역 주요 여행사를 초청하여 일본 도쿠시마 ⇄ 무안국제공항 간 전세기 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답사에는 'JTB 도쿠시마'의 니시 마사나오 사장을 비롯하여 긴키니뽀투어리스트, 일본여행 등 9개사 12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을 방문하여 엑스포 동영상 관람하고,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주몽'의 촬영장인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일본 아스카 문화의 원조로 불리는 '왕인박사 유적지', 목포 유달산 등 일본인이 선호하는 관광자원을 답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관광 상품은 '07년 전라남도가 실시한 무안공항 이용 전남여행상품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본 JTB와 세방여행사 주관으로 4.26일~4.29일까지 일본 시코쿠 지역의 도쿠시마 공항을 출발하여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관광객 170명을 모객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모두모아여행사에서는 일본 도쿠시마의 대표축제인 '아와오도리' 및 축제 마라톤 대회 참가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이용 전남여행상품 공모 및 단체관광객 모객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황금연휴기간(4.29~5.5) 일본인 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일본 나고야 「전라남도 워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과(286-5230) | 등록일: 2008.01.10)

[전라남도] 정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심의 확정

- 10일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 개최

- 서남권 정부계획에 총 44개 사업 24.6조 원 확정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 등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계획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전라남도의 서남권발전을 위한 추진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08~2020년(13년간)까지 서남권 발전사업과 인프라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총 44개 사업(서남권발전사업 32, SOC사업 12)에 24.6조원(재정 15.1, 민자 9.5)이 투자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인 가운데 오는 2월중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서남권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인근지역 발전계획과 통합연계체계구축, 서남권지역과 연계한 SOC 조기확충, 4대 정책과제와 전라남도 자체발전계획을 연계한 시너지 창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총력경주,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체계 구축의 5가지 서남권발전 극대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라남도, 서남권추진지원단(286-2180) | 등록일: 2008.01.10)

[전라북도] '08년 관광산업예산 이렇게 쓰인다

- 해양관광의 꽃인 크루즈관광산업 기반구축 역점
- 전북관광의 숨은 멋을 세계 관광객에게 알릴 마케팅 강화

2008년도 전라북도 해양관광산업의 새로운 원년을 맞이하게 될 예산이 확정되어 전라북도 크루즈관광산업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관광의 꽃인 크루즈관광산업을 통하여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21세기는 해양관광산업 중 크루즈관광이 핵심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관광객도 아시아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세부추진전략을 '07년 4월에 발표하게 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준비하게 되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는 크루즈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크루즈관광객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을 해외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크루즈유치 제안서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선사와 크루즈상품 개발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크루즈 정박여건 및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크루즈 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전라북도 관광여건도 홍보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라북도 크루즈관광산업의 지평을 열게될 2008년도의 전라북도 크루즈관광산업은 해양관광의 기반을 구축할 원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크루즈유치를 강화함으로써 전라북도의 크루즈관광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전라북도, 담당: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계 성기만(280-4745) | 등록일: 2007.12.28)

[전라북도]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 서해안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의 획기적인 전기
-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지구를 연계한 관광특화지역으로 조성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의 특정지역 지정(안)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일부지역 1,066km²(전라북도 전체면적의 13.2%)에 대하여 해양, 농경, 선사, 문화, 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복원·정비가 이루어져 이 지역 문화관광사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서해안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선사·농경역사 문화자원, 그리고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2월과 5월 두 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6년 5월 건설교통부에 해양·농경역사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그동안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하였다.

도에서는 이 지역 변산을 중심으로 『해양·농경역사문화 관광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농경역사 문화자원을 복원·정비하고, 4계절 복합관광단지들을 조성하여 21세기 체험형 종합관광레저지대를 만들 계획이다.

도에서는 이를 위하여 특정지역 내 자원유형을 역사문화자원, 관광휴양자원, 자연경관생태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특성 및 잠재력을 분석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서해안 갯벌과 고창의 명사십리해안선을 따라 복합해양관광레저중심권 ▲부안의 실학문화유적과 마한·백제의 고대문화유적, 고창선사문화유적과 읍성을 권역으로 한 역사문화중심권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와 녹색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중심권으로 설정하는 등 3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의 특성 및 자원의 잠재력에 따라 특성 있게 개발하고, 제4차 전북권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통한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안)을 보면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총 3개 부문, 37개 사업에 1조 6,719억(국비 1조 1,147, 지방비 2,724, 민자 2,848)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부문별로는 ▲역사문화정비사업은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1,840억원(국비 1,009, 지방비 778, 민자 53) ▲관광레저개발사업은 부안 비키니해수욕장 개발사업 등 21개 사업 6,634억원(국비 1,893, 지방비 1,946, 민자 2,795) ▲기반시설확충사업은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등 4개 사업 8,245억원(국비 100%, 보상은 지방비)이다.

금번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새만금개발특별법의 통과로 개발 잠재력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의 해양·선사·농경문화의 실체가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 재조명 될 것이며, 특히 고군산군도의 환황해권 국제관광지와 새만금개발특별법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된 새만금지구 종합개발과 더불어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국제수준의 종합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금년 중으로 특정지역 지정을 확정 고시하고, 2008년에는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정지역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개 지구에 500km² 이상, 도 전체면적의 30/100범위 내에서 1개 도에 1개 지역(2개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2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개요〉

1. 명 칭: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2. 위치 및 지정면적: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일원 1,066.433km²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²)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대상 사업계획(안)
		편입면적(km ²)	편입행정구역(km ²)	
전라북도	8,050.650	1,066.433	2시 2군 3읍 26면	37개 사업
김제시	542.200	122.940	만경읍(24.01), 죽산면(36.80), 부량면(20.12), 청하면(19.79), 성덕면(22.22)	- 김제 벽골제문화자원정비 등 3개 사업
부안군	493.208	361.550	부안읍(24.84), 주산면(24.73), 행안면(20.13), 보안면(41.50), 변산면(85.20), 진서면(39.73), 백산면(36.48), 상서면(51.53), 줄포면(23.14), 위도면(14.27)	- 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 유물관 조성 등 17개 사업
정읍시	692.801	90.710	고부면(40.01), 영원면(24.95), 이평면(25.75)	- 고부 구읍성 및 고부관아 복원정비 등 7개 사업
고창군	606.822	491.233	고창읍(45.504), 고수면(45.577), 아산면(74.738), 무장면(43.778), 공음면(50.046), 상하면(32.961), 해리면(39.494), 성송면(36.249), 심원면(39.230), 흥덕면(33.361), 부안면(53.295)	- 고창읍성주변정비 등 10개 사업

〈특정지역지정 제도개요〉

□ 특정지역 제도

- 목 적: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특정한 목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 근 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정원칙
 - 시·도별로 1개소 이내 지정을 원칙, 다만 도의 경우 지역개발 재원의 한도 내에서 2개소 이내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범위: 500km² 이상으로서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지역 유형

○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문화·관광형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그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특정지역지정 현황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94. 10월 승인)

- 대상지역: 2개 도(충남, 전북), 4개 시·군(공주, 부여, 논산, 익산)
- 지정범위: 1,915km²(전북 295km², 도 전체면적의 3.66%)
- 사업기간: 1994~2010(17년간)
- 사업비: 2조 9,938억원(국비 13,564, 지방비 6,257, 민자 10,117)
- 사업내용: 5개 부문 57개 사업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04. 12월 승인)

- 대상지역: 충남 6개 시·군(서산, 보령,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지정범위: 955km²
- 사업기간: 2005~2014(10년간)
- 사업비: 1조 505억원(국비 4,502, 지방비 5,258, 민자 745)
- 사업내용: 4개 부문 46개 사업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05. 12월 승인)

- 대상지역: 전남 8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 지정범위: 809km²(전남도 전체면적의 6.7%)
- 사업기간: 2006~2015(10년간)
- 사업비: 1조 1,301억원(국비 5,304, 지방비 5,542, 민자 455)
- 사업내용: 4개 부문 42개 사업

□ 특정지역 지정 효과

○ 개발사업비 재정지원

- SOC사업비를 5천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로 100% 지원(토지매입비는 지방비)하고, 문화재 및 관광개발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설계 승인으로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민간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 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전라북도,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 관광자원개발담당 이요현(280-3337) | 등록일: 2007.12.31)

[전라북도] 전북관광홍보 사이버게릴라 양성

- 도내 관광학과 대학생 활용 관광미니홈피·블로그 제작 운영
- 유명 포털사이트에 전북관광홍보시스템 60개 운영

2008년도에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통과와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가시화, 새만금방조제 주변 관광자원 우선개발, 새정부 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차원의 새만금T/F 운영 등 새만금지역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한 전북관광홍보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도내 대학교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북관광미니홈피, 블로그를 공모하여 우수 미니홈피 30개와 블로그 30개를 선정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터넷 관광홍보가 전라북도 문화관광홍보시스템(gojb.net)을 중심으로 단일통로에 의한 홍보로 이루어 졌다면, 금년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이 유명포털사이트상에 60개가 가동된다는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북관광이 네티즌의 입맛에 맞는 색깔있는 정보로 다양하게 가공되어 제공됨으로써 지금보다 몇 십 배의 관광홍보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상에 온라인 일기장으로 불리고 있는 블로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변화추세에 비추어 전북관광 미니홈피·블로그 운영은 사이버상에서 전북관광홍보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인터넷상 관광홍보의 기본자료가 되는 전북관광홈페이지(gojb.net)의 개선 및 메일링, 오버추어 광고 등도 예년보다 강화하여 네티즌들에게 우리 도의 숨겨진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담당: 관광산업과 관광홍보담당 안동환(280-3338) | 등록일: 2008.01.03)

[전라북도]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AI Ahli Group(AAG) 관계자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전북도에서 민선4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

업은 2008년 대규모 투자유치의 실현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의 법적절차 마무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극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8.1.7(월) 아랍 에미레이트공화국에 본사를 둔 Al Ahli Group(AAG) 국제개발사업부 사장 Stephen De Milta 외 관계자 10여 명이 전라북도를 방문, 주요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관련 공무원들과의 투자상담 및 토의를 통해 관광·레저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깊은 관심과 투자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라북도가 동북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역점 개발 프로젝트인 새만금개발사업과, 새만금·군산경제 자유구역(SGFEZ),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Presentation 질의 답변과 현지를 헬기로 시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Al Ahli Group(AAG)은 현재 Dubai Outlet City(약 \$1billion, 1천조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휴양형 관광·레저산업을 추진하고자 해외 투자 적격지를 모색하고 있던 중,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와 광활한 개척의 땅 새만금지역을 직접 시찰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향후 Al Ahli Group(AAG) 차원에서 투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뜻을 보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중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외국인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홍보하고 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전라북도에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전달했다.

Al Ahli Group(AAG) 관계자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국내·외 관심있는 투자자를 초청하여 현지방문안내 활동을 더욱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투자자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자유치컨설팅용역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정보교류사업과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를 세계 속에 알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전라북도, 담당: 관광개발과 국제해양관광담당 고재찬(280-4332) | 등록일: 2008.01.07)

[전라북도] 관광공사 전북지사 설립 세미나 개최

관광공사 전북지사 개설에 따른 역할정립 방향 모색

- ▶ 전북 관광산업의 희망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관광공사 전북지사 개소식을 앞두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
- ▶ 세미나 결과를 통한 관광공사 전북지사와의 유기적 업무공조 체계 구축 및 신명나는 전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토론

전라북도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1월 17일(목) 공식 개설됨에 따라 전북지사의 역할 정립을 찾고, 상호 유대와 역할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월 9일(수) 도청에서 다양한 관광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도·시군 관광 관련 담당공무원, 관광전문가, 관광협회, 관광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광모니터, 여행사 임원, 일반인 등 약 1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제 1주제로 관광공사 전북지사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광철 국회의원의 “대한민국 관광자원의 보고 전라북도”라는 주제를 통하여 천혜의 전북관광자원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공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 2주제는 호원대학교 장병권 교수의 “전북 관광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정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양 기관의 업무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발표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인천관광공사 기획팀장,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장, 전라북도 관광협회장, 대학교 관광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전라북도와 관광공사 전북지사의 역할과 공조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참석 토론자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경험자이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금번 세미나 결과를 통해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유기적인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관광공사도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를 경영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북도 관광정책에서 미진한 부분인 해외관광 마케팅 분야,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부분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용지개발, 무주 태권도공원조성 등의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전북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 담당: 관광산업과 관광산업담당 최동명(280-3333) | 등록일: 2008.01.08)

[제주특별자치도] '08년 관광분야 제도, 중요하게 달라지는 점

□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07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이 이양된 분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관광기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직접 모객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해, 관광기업은 품질경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광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부여를 통해 제주관광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질인증제(우수관광사업체 지정)는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도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 로고 사용은 물론, 홍보비 지원·포상비·도의 홍보물 등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관광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며, 차등적 지원을 통한 제주관광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관광종사원 교육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사항에서 해제 되어 친절교육 등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종사원 교육을 이양 받은 바, 작년부터 종사원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종사원 교육 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특성화 교육 방안 마련, 교육기간의 탄력운영 방안 마련, 차등적이면서 업종별 교육교재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며, 올해 법상 관광사업체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 새로운 관광사업(체험레저 등)에 대한 업종을 신설, 지원·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ATV, 카트 등 새로운 체험레저 업종을 관광사업체로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07년 제도 개선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바, 올 초 이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와 규모를 갖춘 ATV, 카트 등에 대하여 적용해 나가며,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종목(산악자전거 등)과 타 분야(요트 등)에서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분석을 통하여 그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선 이러한 요트,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체험레저분야에 대하여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계 상품구성 방안과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 제도적으로 바뀌는 사항으로

기타유원시설업 영위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 등에게 피해보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사업자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관광진흥법 제9조), 기타 유원시설업의 경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시에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획여행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등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차등화가 적용된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소여행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한다.

- 50억 미만 : 2억원 이상, 50억~10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100억~1,00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710-3311) | 등록일: 2008.01.03)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라온승마랜드(Horse land) 개발사업시행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라온 승마랜드(Horse land) 개발사업을 시행승인 했다고 밝혔다.

라온 승마랜드(Horse land)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일원 196천㎡의 부지에 2007.12부터 2008.10까지 512억원을 투자하여 국제승마경기장, 세계명마전시장, 공연장 등을 갖춘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림·서부권에 체험·체류형 라온 승마랜드(Horse land)가 조성되면 주변의 골프장 및 관광지 등과 연계된 관광벨트화가 가능하게 되어 한림·서부권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통합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 등 절차 이행에 평균 22개월 소요되던 것을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라온승마랜드주식회사에서 신청한 라온 승마랜드(Horse land) 조성사업에 대하여 작년 12월 28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결정,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협의, 각종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12개월만인 지난 12월 31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 일괄처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 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과(710-3791) | 등록일: 2008.01.04)

[최근개정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령 제601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여가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대하고,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골프장 내에 일반음식점의 설치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확대(안 제58조)

- (1) 국민여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원지 안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유원지 안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를 즐기려는 국민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함.

나. 종합운동장의 유희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허용(안 제93조)

- (1) 종전에는 종합운동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수익이 낮아 재정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종합운동장의 경우 공연장, 예식장, 회의장, 미술관, 과학관 등 수익시설을 운동장의 유희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종합운동장의 유희공간에 일부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유희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운영수익을 개선함으로써 운동장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설치절차의 간소화(안 제101조제1항)

종전에는 골프장 안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 공포일자: 2008.01.14)

[입법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안)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35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박람회 관련시설”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정의함.
-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 마.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매 등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함.
- 아.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차.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여수세계박람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회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전화 02-3674-6281, FAX 02-3674-6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3674-6281) | 예고일자: 2007.12.31)

[해외동향] 태국 관광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줄줄

- 향후 3년 내 해당분야 외국인 투자규모 60억 바트 수준 -

(이성훈 방콕 무역관(kotra2@kotrathai.com) | 보고일자: 2007.12.12)

□ 향후 3년, 호텔 및 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규모 60억 바트(약 1억 7,600만 달러)

- 주요 투자지역: 푸껫, 치앙마이, 후아힌, 아유타야, 사무이섬 등
- 주요 투자기업: 최근('07년 11월 말~12월 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최소 4개 인터내셔널 투자회사에서 푸껫지역 중심 관광산업 대규모 투자안을 확정지었음.
- 2004년 쓰나미 사태 이후 태국 관광객은 종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

□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

(단위: 명, %)

Year	Arrivals	Y-O-Y%Change
2004년	11,737,413	17.32
2005년	12,516,702	6.64
2006년	13,135,569	5.79
2007년	14,250,403	8.49
2008년	15,154,284	6.34

- 2007년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8.49% 증가한 1,5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3년 SARS로 인해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적 있으나, 2004년 그 수는 크게 증가
 - 2004년 쓰나미로 인해 푸껫 등 관광객 수가 부분적으로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지속되는 남부지방, 정치 불안 등이 관광객 유치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기는 하나 2008년에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외국계 기업 대태국 관광산업분야 투자계획

- 쿠알라룸푸르 소재 투자컨설팅사인 Devonshire Development Capital사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 미디어 및 에너지 부문 대태국 투자를 한 상태며, 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Fong Wiai Leong사의 경우도 푸껫 및 사무이에 있는 미디어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Fong Wiai Leong사는 푸켓지역 “Lifestyle Hotel”, 후아힌 및 치앙마이 지역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음을 밝힘.
- 12개국 45개 지사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계 Dragon Group에서도 아유타야 지방의 IT 및 미디어 산업에 투자한 바 있으며, 푸켓·치앙마이·후아인 등에도 관광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Dragon Group의 계열사인 Asti Holdings사는 현재 푸켓에 40객실 규모 호텔을 소유하고 있음.
 - 이 회사는 추가로 푸켓지역에 6억 바트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치앙마이 지역에 1000 Unit 규모의 거주용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설립을 계획(10억 바트 규모)중임.

※ 자료원: 태국관광청, Pacifica Asia Travel Association(www.pata-thailand.org), 현지언론 종합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7.12.12)

[해외동향] 한국과 호주의 관광교류 동향

- 경제·무역교류 증진으로 비즈니스 관광객 지속 성장 -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최원석 시드니 무역관(jmorning@kotra.or.kr) | 보고일자: 2007.12.31)

□ 관광교류 현황

가. 호주인의 한국 방문

- 과거 5년간(2002~06년) 호주인 방한객 연평균 7.3% 성장

〈연도별 방한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월
방한 호주인(명) (성장률, %)	49,765 (12.3)	48,611 (-2.3)	57,834 (19.0)	63,464 (9.7)	68,328 (7.7)	65,773 (17.7)
총입국자수(천명) (성장률, %)	5,347 (3.9)	4,753 (-11.1)	5,818 (22.4)	6,022 (3.5)	6,155 (2.2)	5,332 (3.8)

자료원: 법무부 출입국통계

나. 한국인의 호주 방문

- 과거 5년간(2002~06년) 한국인 호주 방문객 연평균 8.5% 성장

〈연도별 방호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0월
방호 한국인(명) (성장률, %)	189,700 (8.4)	207,300 (9.3)	211,900 (2.2)	250,400 (18.2)	260,900 (4.2)	211,100 (2.0)
총출국자수(천명) (성장률, %)	7,123 (17.1)	7,086 (-0.5)	8,826 (24.5)	10,078 (14.2)	11,610 (15.2)	11,171 (16.3)

자료원: Tourism Australia, 법무부 출입국통계

□ 호주인 한국여행 실태

가. 방한 통계(2006년 법무부 출입국통계)

- 성 별 : 남성(60.1%), 여성(34.9%), 승무원(5.0%)
- 목적별 : 관광(79.6%), 상용(6.5%), 공용(0.4%), 기타(13.5%)
- 연령별 : 31~40세(21.4%), 41~50세(21.2%), 21~30세(16.9%)

나. 여행실태(2006년 외래객 실태조사)

- 한국방문 횟수
 - 1회(63.1%), 2회(14.5%), 3회(5.6%), 4회 이상(16.8%)
- 평균 체재기간 : 7.5박(전체 평균 6.1박)
- 지출경비 : US\$ 1,297(전체 평균 US\$1,194)
- 한국방문 목적
 - 사업·전문 활동(52.3%), 여가·위락·휴가(24.9%), 친구·친지 방문(13.7%), 종교 및 순례(0.6%)
- 한국여행 동기
 - 한국을 알고 싶어서(57.4%), 비용이 저렴해서(34.1%), 관광지의 볼거리(31.0%), 주변인의 추천(30.2%)
- 여행정보 입수 경로
 - 인터넷(58.5%), 친지·친구·동료(51.9%), 여행사(46.7%), 관광안내 서적(29.7%), 항공사, 호텔(18.0%)
- 여행형태
 - 개별여행(87.3%), 단체여행(8.9%), 에어텔(3.9%)
- 인상 깊었던 점
 - 친절함 사람들(76.3%), 안전(61.0%), 독특한 문화유산(59.1%), 맛있는 음식(51.4%)

- 불편사항
 - 언어소통(60.8%), 교통혼잡(32.6%), 비싼 물가(22.2%), 안내표지판(21.6%)
- 쇼핑품목
 - 의류(28.2%), 식료품(19.9%), 술(17.0%), 보석 및 액세서리(15.4%)

□ 향후 전망

- 호주 경제성장, 호주화 강제 등으로 한국 방문 지속적 증가 예상
- 한-호 양국의 경제, 무역교류 증진으로 비즈니스 관광객 지속 성장
- 멜번 대한항공 신규 취항으로 멜번지역에 대한 한-호 관광객 증대 예상
- 한국은 유럽여행 경유, 중국 등 제3국 연계 관광목적지로 정착
- 호주는 한국 신혼여행 시장, 가족여행객들의 해양관광 목적지로 정착되고 있으나 바가지 쇼핑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재방문이 어려움

□ 주요 과제

-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2007년 국가브랜드지수(CBI; Country Brand Index) 조사결과
 - 1위(호주), 2위(미국), 3위(영국), 4위(프랑스), 5위(이탈리아), 6위(캐나다), 7위(스페인), 8위(뉴질랜드), 9위(그리스), 10위(일본)
 - 크로아티아, 중국, UAE 등 3개 국가를 앞으로 5년 이내에 주요 관광목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선정
 - 호주는 총 22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상위 10위권에 기록해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브랜드 1위를 기록
 - 한국은 쇼핑 1개 부문에서만 10위에 기록

※ 자료원: 한국관광공사 등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7.12.31)